

종합

黨政 “로스쿨 지역 안배”

“내년 정착비 9억 전국에 균형있게 지원”
교육용 전기료, 산업용수준 인하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는 2008년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지방문 제6 정 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담화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구노회 원내 부대변자가 전했다.
당정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볼 때 로스쿨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방대학이 로스쿨 배정과 예산 지원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로 책정한 9억원의 예산을 전국 대학에 균형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고,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립대 교원성과 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예산을 40억원 증액키로 했으며, 국립대 부설학교 특수학교 지원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이 밖에 내놓은 사업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도우미 관련 예산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9월초 발표 예정인 대학입시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 암기형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나 단답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은 논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문 제6 정 조위원장은 “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대강의 원칙을 보고했고, 우리당 의원들은 위반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해프닝’으로 끝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서울 시내 학군 광역화 발언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민기자 sykim@kwangju.co.kr

광주 지하철
전동차 과다구매
234억원 낭비

한나라 김태환의원 지적

광주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이 있는 전국 주요 도시들이 교통수요 예측 오류로 지하철 전동차를 과다 구매해 1천44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철도 전동차량 구매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1호선·서울지하철 6호선·부산 2호선·대구 1호선에서 총 243량의 전동차를 과다 구매해 1천440억9천만 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광주지하철 1호선의 교통수요는 예측치의 38.9%에 불과, 234억원(20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6일 오후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전남지역에 이전할 이전 대상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관용(시립학교 교직원연공금리공단 이사장), 정구래(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이근철(전파연구소장), 이홍섭(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이규태(정통부 지식정보센터장), 안중은(농업기반공사 사장), 최광현(해양경찰청장), 서병문(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임장건(한전 KDN 사장), 현기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노태섭(지적관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J프로젝트 간척지 저가공급 등 검토”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來道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이 26일 영암·해남의 기업도시(J프로젝트) 시범사업 선정 및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의 이행기본협약 체결을 위해 전남도를 방문했다.
-J프로젝트 성공의 최대 관건이 개발예정인 영암·해남지역 간척지의 양도·양수문제인데,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된만큼 무상양여는 있을수 없다는 농민부의

주장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저가공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과 무상양여 차이 속에서 현명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 허가는 가능하다.
▲외국인 카지노는 적극 검토하겠지만 내국인의 경우 현재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위한 카지노특별법 제정 문제는 논란

이 적지않은 만큼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
▲특별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약 2천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문화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장관의 고향에만 쏟아부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고심이 많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아무도 못말리는 '스토커'
(An advertisement for a book or exhibition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person and a car.)

ILO총회 연기...국제 망신
민노총·한노총 불참선언

한국의 노사정이 유치한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가 민노총과 한노총의 불참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사게됐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 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로써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ILO 아태지역 총회는 사실상 연기됐으며 평등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ILO의 공식 확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또한 애써 유치한 국제 회의의 ‘집안 싸움’ 때문에 제 때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최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DJ센터 누수' 발생자 찾는다...특정직원 조사

광주시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누수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며 특정 직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감사관의 부당한 행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 감사관실 조사과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 A씨를 불러 1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는 주로 누수 사고 발생

광주시 부적절한 감사 논란

당일(17일) A씨 행적에 초점이 맞춰졌다. 광주시의 감사는 공무원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무원 직무규정’ 및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근거,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에 A씨에 대해 벌인

에 발발했으나...

조사는 복무규정·복무조례 위반과 무관한 건물 누수 외부 발생여부를 추궁하는 것이어서 감사관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비밀엄수’조항에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을 지키도록 돼 있을 뿐 설계나 시공이 잘못된 공공건물의 문제점을 외부

에 발발했으나...
더욱이 A씨는 당일 근무시간대로 보아 외부 제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5일자 광주일보 1면 'DJ센터 누수' 제목의 기사 내용중 김대중컨벤션센터 설계업체중 한곳으로 거명된 '유담건축사무소'는 설계업체가 아니라 감리업체이며 회사명도 (주) 유담엔지니어링임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공시 최고
광주 지방법원 판사 파견명
Table with columns: 사원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columns: 사원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columns: 사원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